

고흥 민선 7기, 첫 읍면 순방 성황리 마무리

군민 하나되기 운동, 민의·소통행정 각인 생생한 민의 324건 수렴...군정 반영 약속

고흥군(군수 송기근)은 6일 민선 7기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의 비전을 제시하며, 취임 후 처음 실시한 읍면 순방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일부터 시작된 읍면 순방은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 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기간 중에는 읍면별로 2명씩 32명의 모범 군민을 표창한데 이어, 군정 비전 설명, 군민과의 열린 대화,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금번 읍면 순방은 형식적인 틀에 얽매었던 과거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신선했으며 군민과의 대화라는 본래 취지에도 충실했다는 반응이다.

16개 읍면마다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출되면서 송 군수가 표방한 권위주의 배격과 민의·소통 행정의 참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평소 군수를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계층 2천500여명이 고루 참석해 군정 비전과 시책 공유는 물론, 군정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으며, 격의 없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민의를 여과 없이 전달하기도 했다.

또, 행정적으로는, 군수가 군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 군정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확인함과 동시에, 소소한 군민들의 애로까지 속속들이 헤아리는 계기가 됐으며, 무엇보다 군민 하나되기 위한 군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군정 신뢰도를 제고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순방 첫 날부터 파격적인 의견과 거침없는 달변으로 관심을 모았던 송 군수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다. 풍부한 행정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청렴 의식과 행정 철학, 강직한 공직 소신 등이 행정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각인시킨 것으로 보인다.

송 군수는 사중일관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자세로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고흥 발전 도모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 △민주적 방식에 의한 민의 소통 행정 실현 △군정-읍면·마을 간 행정질서 확립 △공직자 친절 생활화 △청렴도 전국 10위권 진입 △권위주의 배격 등의 군정 기조와 역점 시책을 강조했다.

군민과의 열린 대화에 있어서도, 질문 내용과 질문자를 사전 지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참석 군민 누구나 애로 및 고충을 제약 없이 건의하도록 했으며, 답변도 송 군수가 직접 간단명료하고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고흥군 민선7기가 6일 취임 후 처음 실시한 읍면 순방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또,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 직후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여 줌으로써, 군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였다.

참석 군민들도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자유 발언 기회를 통해 읍면 순방 사상 '역대 최다 건의'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총 244명의 군민이 324건을 건의했는데, 이는 읍면당 평균 20건 꼴로, 보통 5~6건에 불과하던 과거 평균치보다 무려 4배나 많은 건수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 143건(44.1%) △생활환경 55건(17.0%) △일반행정 38건(11.7%) △사회복지 31건(9.6%) △관광육성 23건(7.1%) △농림수산 22건(6.8%) △문화예술 12건(3.7%) 등이다.

이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화에 참석한 한 군민은 "질문자가 없을 정도로 많은 질문이 쏟아져 이전과는 많은 차이를 느꼈다"며 "군수가 어떤 질문이라도 폭넓게 알고 있어 행정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였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군정이 잘한 점은 칭찬 격려와 함께 홍보도 해주시고, 잘못된 점은 냉철하게 비판하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군민 하나되기 운동에 공적자는 물론, 전 군민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흥=윤규진 기자 jin2001@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오늘 개막

9일까지 테마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순천의 맛과 멋에 한껏 빠질 수 있는 2018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순천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낱자별 테마가 있는 '마싯데이(day)' - 고들빼기day(7일), 국밥day(8일), 구구day(9일)를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퓨전 앙상블 DIO와 빅맨싱어즈의 팝페라 공연과 VR ART 퍼포먼스로 개막식이 7일 금요일 광주은행 앞 주무대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개막행사로 순천시장과 시민이 함께 푸드아트 페스티벌과 순천시에 대해 허물없는 토크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 축하공연은 인기 여성디바 다비치가 출연하고, DJ 댄스파티로 전 연령대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려져 있다. DJ 댄스파티는 행사기간 내내 저녁 9시부터 10까지 열려 축제를 신나게 마무리 할 예정이다.

푸드로드(중앙로)에서는 닭구이와 국밥 등 7곳의 권역별 음식과 전문가의 심사와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주전부리 음식 40종을 맛볼 수 있으며,

BBQ존을 운영해 도심 속 캠핑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셰프와 함께하는 시민 요리교실과 음식체험존, 글로벌음식존도 운영해 이색적인 맛을 선보인다.

아트로드(문화의거리)에서는 전국 예술가가 참여한 아트마켓(30팀)과 아트제형(13팀), 정원마켓(15팀)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한옥글방 웹툰체험존, 청소년수련관 에어바운스 놀이터, VR 체험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온가족이 즐기는 축제가 될 것이다.

또한, 특산물판매존에서는 남해안 인근 8개 도시와 마을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한 20여개 부스가 운영되니 다가오는 추석맞이로도 안성맞춤이다.

푸드아트 페스티벌 기간 중앙로 일원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시는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관광지와 축제장간 셔틀버스를 15분 간격으로 3개 코스를 운영하며 남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등 임시 무료주차장 5개소를 확보했다.

자세한 코스 및 탑승 시간은 푸드아트페스티벌 홈페이지(<http://sc-festiva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오승택 기자 ost6002@

광양,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

마을만들기 분야 5개 지구...2년간 25억 지원

광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마을만들기 분야에 5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로는 광양읍 본정마을, 옥룡면 남정마을·갈곡마을, 진상면 삼정마을, 진월면 대리마을로 2년간 국비 70%를 포함한 각각 5억 원씩 총 2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문화와 복지, 경관·생태 분야를 중심으로 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태보전을 통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고, 농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모 신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지역주민과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농촌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태 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의 열악한 기초생활과 문화·복지, 경관·생태를 크게 개선함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매력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오승택 기자 ost6002@

보성, 도시재생뉴딜사업 70억 확보

1인 가구·독거 노인 등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기대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 돼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총 8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됐고, 그 중 보성군 별교장작마을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구도심을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해 지역에 새로운 부흥기를 선사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별교읍 장좌마을은 '업

마을 주거지 장좌마을'이라는 목표로 2019년부터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사업비는 편안한 주거지 환경재생에 18억 원, 함께하는 전통문화 공동체 사업에 23억 원 등 장좌마을에 총 7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장기적인 도시재생 로드맵을 위하여 '선순환 공공인대주택사업'과 공기업 연계로 추진 예정인 'LH 행복주택 사업'을 이번 사업에 포함해 1인 가구, 독거노인 거주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곡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0% 선정

내년부터 27억 투입...주민체감형 사업 모색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과 자율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5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고유 자원과 특성을 살려 주민주도로 마을을 발전시켜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종합개발사업 부문에 고달면 가정마을(10억 원), 자율개발사업 부문에 오곡면 구성마을(5억 원), 고달면 백곡마을(5억 원), 석곡면 전기마을(5억 원), 시군역량

강화사업 부문에는 곡성군(2억 원)이 선정됐다.

이들 마을에는 지방비 포함 27억 원이 투입돼 2019년부터 최대 3년 간 사업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이 다시 활력을 찾고 제 기능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주민체감형 사업을 찾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